

레저

자가격리 없는 여행, 시작인가?

엔터/레저

Analyst **이효진**

02. 6454-4864

hyojinlee@meritz.co.kr

RA **정은수**

02. 6454-4887

esjung@meritz.co.kr

마카오-중국 간 자가격리 해제

전일 마카오 내 중국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뉴스가 보도됨. 효력은 2월 23일부터 발효되며 보도 후 마카오 카지노를 비롯하여 한국 카지노, 여행 주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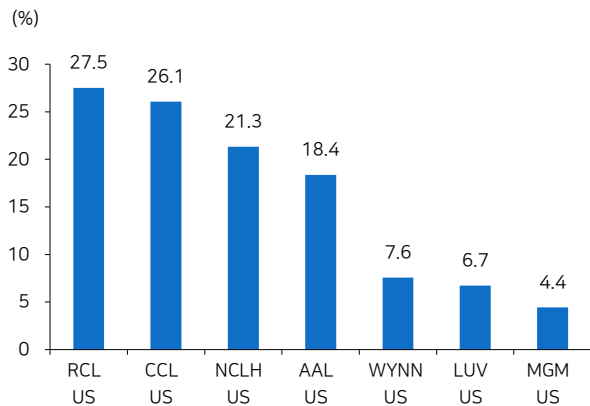
지난주부터 글로벌 여행, 카지노를 비롯한 항공주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기 시작함.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RCL US)의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예약을 재개한 일부 지역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백신 등의 추가 방역 조치(비용 증가)로 상품의 가격은 코로나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나 펜트업 수요의 강도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카니발(CCL US)에 따르면, 3월말부터 유럽 내 크루즈 운항을 재개 함. 크루즈 승선 사진과 같은 시각적 자극은 투자자들의 산업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

한국 업체들은 어떻게 after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행업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산업. 하나투어의 경우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를 진행 중. 2020년 기준 하나투어의 직원 수는 2,300여 명으로 동종 업계 2위인 모두투어의 1,100명 대비 2배 이상 많은 상황이기 때문. 당사 추정에 따르면, 하나투어 직원 수가 모두투어의 1.5배인 1,500명 수준까지 줄어든다면 연간 인건비 절감 효과는 약 400억원에 달할 것. 1) 인력 재배치(자연적 구조조정) 및 2) 자회사 청산에 따른 고정비 감소가 이루어진 패키지 사업자들(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은 여행 재개 시 높은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을 것

파라다이스의 경우 지난 3분기 비카지노 시설의 인력 구조조정을 대거 단행한 바 있음. 현재와 같은 월 200억 수준의 매출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연간 EBITDA는 BEP에 달할 정도로 비용 감축을 진행한 상황. 이는 사업이 재개될 경우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의미하기도 함. 2022년 2019년 카지노 매출의 85% 수준인 6,700억원을 달성할 경우 예상 영업이익은 435억원(vs. 2019년 519억원). GKL 또한 서울 주요 지역에 카지노가 위치한 만큼 영업 회복 속도는 파라다이스와 유사할 것. 롯데관광개발 또한 최근 제주드림타워를 개장해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됨. 특히 카지노 산업의 경우 2020년 연초 대비 수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무른 만큼 주가 상승 탄력도가 당분간 강하게 유지될 전망

그림1 해외 여행 종목 1W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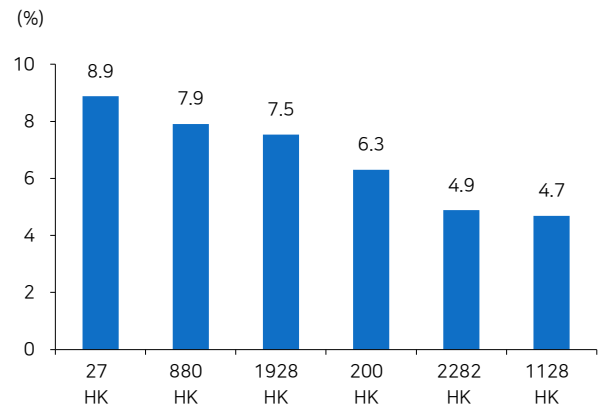


주1: 2021년 2월 15일 종가 대비 2021년 2월 22일 종가 기준

주2: 가장 좌측부터 1)로알 캐리비안 크루지스, 2)카니발, 3)노르웨이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 4)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5)윈 리조츠, 6)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7)MGM 리조츠 인터내셔널 순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해외 카지노 종목 1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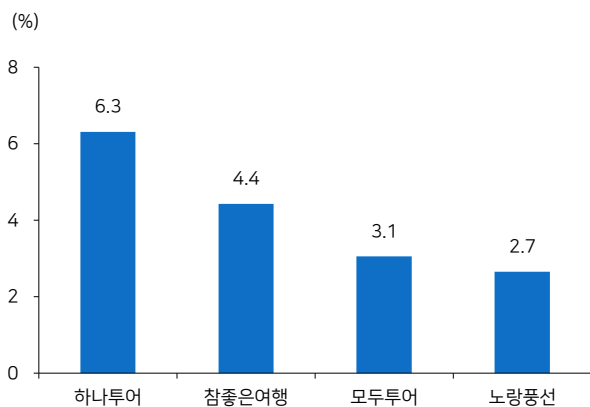


주1: 2021년 2월 23일 종가 기준

주2: 가장 좌측부터 1)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2)SJM 홀딩스, 3)진사중국, 4)멜코 국제 개발, 5)MGM 중국 홀딩스, 6) 윈 마카오 순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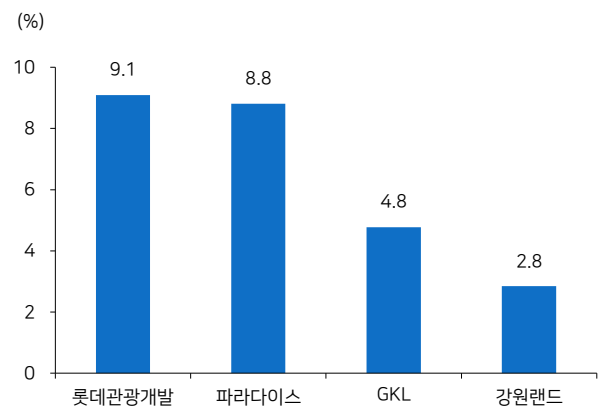
그림3 국내 여행 종목 1D 수익률



주: 2021년 2월 23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내 카지노 종목 1D 수익률



주: 2021년 2월 23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